

##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6:1)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바로는 이를 거부하였다. 모세는 자신의 임무수행에 실패한데 대하여 여호와께 호소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고 *내가 보리라* 하시면서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이 하실 일로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즉 양자간의 특별하고도 영구한 선민 관계의 구축과정에 있음을 보여 준다.

### 언약의 회고 (1-5)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에게 입증하시기에(7-12 장) 앞서, 모세는 자신이 5:22-23 에서 호소한 데 대한 또 다른 답변을 듣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어 보이시고 이 이름에 담긴 내용을 명백히 하신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이다.

### 언약의 실행을 약속 (6-8)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근본약속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하여 스스로 의무를 지시고 마치 사람이 아무개를 자기 가정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듯이 이 백성을 받아들여 하신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3 장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것처럼 들린다. 하나님은 새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반면, 이제까지 통용되던 이름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와 그와 맺은 약속을 상기시킨다(창 17:1-2). 이것은 제사장 전통과 관계되는데, 제사장 전통에서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언약의 내용으로 맨 먼저 그리고 맨 나중에 언급되고(4,8 절), 그러한 약속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살아야 했던 시대에 다시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띄게 한다. 여기서 새 이름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드러낸다. 야훼(여호와, 주)는 지난날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은 권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 이스라엘 백성의 무관심 (9)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흑사당하는 현장으로 인하여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모세의 말에 호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지쳐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의 상함이라고 옮긴 히브리어 표현은 문자적으로 '호흡이 짧음'을 뜻한다).

###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언급

출애굽기 6:13-27 에서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언급되었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와 집안 (그 조상을 따라 집='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계보는 하나님과 모세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연결되는 흐름을 깬다 (6:12 절은 바로 7:1 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미 세째 지파 시조 (레위)에 이르러 지파별 계보는 중단되고 관심은 전적으로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집중되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 (그 여러 아들과 함께)을 특별히 다룬다. 삽입된 계보는 모세와 아론에 이르러 그 목표에 다다른다 (모든 지파를 완벽하게 다룬 계보는 민 26 장에 나온다).

### 생각하기

6:28-30 절은 6:1-12 의 내용을 짧게 되풀이하고 그 뒤의 내용으로 넘어간다. 새삼스럽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역사의 주역이었던 사실을 부각시키며 그들의 가계를 굳이 삽입 기사의 형식까지 동원하여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최고 책임자요 출애굽 시대의 정치군사적 영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께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아론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두발로 이 땅을 딛고 한 세상을 살다간 실존 인물이었다는 역사성과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다는 민족적 동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사실은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수행한 모세와 아론도 그가 무슨 특별한 출신과 경력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불들어 주신 은혜로 것처럼 큰 일을 행할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듭 약속 및 예언된 당신의 선민인 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혈통의 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워 전개시킴으로써 그 정통성과 연속성을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뼈저리게 주지시키실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훗날 예수님께서도 이미 아담의 때부터 약속되고 따로 선택 구분되어 선민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신 사실과도 일맥 상통한다.